

知性的 意味 限定

헤-겔의 歷史哲學에 비추어②

金俊善

어쨌든 歷史는 이 두 가지의 『織組』로써 發展해 가는 道程이다. 그러기 때문에 歷史라는 織物의 體系에 잇서서는 理念이란, 그것뿐으로는 아무 具體的 現實性이 업는, 따라서 『非歷史的』인 一般者이다. 이것을 『歷史的』으로 現實的으로 實現하는 것은 人間的 行爲體인 것이다. 이것이 歷史의 主體이다. 그런데 좀 더 기괴 生角 해보면 歷史의 主體는 思惟的이기보담 行爲的이요, 可思的이기 보담 現實的이기 때문에 空虛한 □□과는 달너서 一定한 現實的 地盤 乃至 環境에서 生活하여 行動하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헤-겔』은 『歷史哲學』에서 風土的 經濟的 모-든 『自然的』인 環境에 對하여 親切히 注意하였고 『法律哲學』에서는 『精神』에 對하여 『身體 概念』에 對하여 『現實 存在』에 特別한 注意를 맞췄다. 하여튼 『헤-겔』의 信念에서 말한다면 歷史의 主體인 人間的 行爲體는 一便으론 理念的 全體를 仰見하고, 一便으론 自己가 노혀 잇는 現實的 地盤을 術仰한다. 여기서 理念을 理想이라고 부르고 現實的 地盤을 알기 쉽게 現實이라고 生角하면 歷史의 主體인 人間的 行爲體는 理想과 現實을 術仰하며, 相副치 못하는 兩者를 一致시키기 爲하여 애쓰는 中間體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한 두 가지 原理 外에 또 한 가지 原理, 卽 現實의 原理가 歷史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歷史는 이 三原理의 相互□□에 依하여 成立한다. 이때 理念은 歷史의 主體가 仰見하는 精神內容이고, 現實的狀況은 歷史的 主體로서의 人間的 現實的 環境으로서 主體가 宿命으로 거기노혀 잇는 現實的 諸 自然態이다. 吾人은 『헤-겔』의 立場에서 前者를 精神이라고 불으고[부르고], 後自를 身體이라고 불을 수[부르고] 있다.

身體와 精神의 統一은 生命이다(法律哲學). 歷史는 歷史的 身體와 歷史的 精神의 歷史的 主體에 依한 統一로서 發展해가는 한 개의 生命이다. 生命이기 때문에 歷史는 한 개의 目的論的 聯關이다. 이것은 『헤-겔』의 歷史哲學

的 根本思想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혀 여기에서 『헤-겔』의 歷史哲學의 根本缺陷 乃至 限界를 發見하지 안할가? 歷史의 一般的, 表面的, 性格이 果然 『헤-겔』의 말과 가티 生命的, 目的論的, 聯關性에 잇다 하도라도 이것이 根本的으로 모-든 自然的 生命과 가티 다만 調和的 合目的的이라하면 우리는 이것이 無條件하고 左祖 시치는 못할 것이다』 自然에는 飛躍이 업다고 한다.

『自然에는 本質的으로 發展이 업다』 고한다.

『自然에는 本質的으로 對立이 업다』 고한다.

요지음 自然科學은 『突然變異』의 事實을 들어 自然의 飛躍을 云云할지 모은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自然의 『自然的』樣態가 안일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낫코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를 낫는다. 自然의 成長은 늘 一定한 『코스』를 밟어 一定한 『테로스』(目的)을 가지고 그 『테로스』에 完結 되는 것이며, 그 完結한 『테로스』는 한 개의 種子로서 다른 자연을 成熟 시킬 種子가 되나 이 다른 自然도 또한 原理的으론 먼저 自然의 反應에 不過하다. 이것은 버리 등 주리 (□□)結果樣式的 例로써 一層더 明確히 認識할수 잇다. 버리의 □□는 神奇롭다. 우리는 거기에 驚異와 絶讚을 마지 안는다. 人間의 建築은 平凡하다. 아모 驚異 에 감싼 것이 업다. 그러나 버리의 千年 前의 結果樣式과 今日의 그것 사이에선 아모 本質的 發展을 發見할 수 업어도 人間의 建築樣式에선 그것을 發見한다. 自然은 本質的으로 『反復』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